

2026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KNN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02.25(수)	KNN 대회의실	9명 /13명	7	0	16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의구, 이준홍, 강정규, 김덕열, 김정환,
김홍준, 복성경, 송연익, 이철희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이오상(대표이사), 추종탁(뉴미디어제작본부장)
김성기(보도국장), 안의섭(기술국장), 국주호(영상제작국장),
허민경(제작국장), 이근호(편성라디오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	3	0	2	6	0	6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6	0	0	6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교양	[공개클리닉 웰-지긋지긋한 비염, 원인에 따라 치료하자] 이번 회차의 가장 큰 특징은 '비염이 모두 같은 비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점임. 비염을 단순히 알레르기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방송에서 혈관 운동성 비염을 중심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원인에 따른 접근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였음. 또한 콧속과 콧물을 통해 알레르기 검사 결과에 대한 오해, 약국 코 스프레이의 장기 사용의 위험성, 처방 스프레이의 올바른 사용법, 알레르기 비염의 유전적 요인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구성은 정보 전달과 재미를 잘 결합한 사례라고 생각함.	예능적인 기능뿐 아니라 최신 치료 방법,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소개했는데 좋게 봐줘 감사함. 앞으로도 의료 프로그램이 단순한 의료 정보만 전달하거나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관심 있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음.	'26.2월
기타	부산의 외국인 학생들 관련하여 학생들의 끼나 그 나라의 문화와 연관된 학교만의 장점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학교별 릴레이식으로 진행해서 약간의 선의의 경쟁도 일으키면 좋겠음. 또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 홍보성 기획을 좀 해서 대학교별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 외국인 유학생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대학들과 접촉을 시작함. 자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감. 제작과 뉴미디어국에서도 아이디어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26.2월
교양	[지역 유산 아카이브 오래된 미래-구포 국수] 과거 영상이 없어 현재 국수 공장 모습과 시를 활용해 CG로 처리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밀가루를 빚어 반죽하는 모습, 수동으로 밀반죽이 면이 되어 나오는 모습 등 옛날 구포 국수 제조 방법이 재현을 통해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음. 구포 국수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포 국수를 먹었던 사람들의 맛에 대한 기억과 그 국수에 얽힌 추억 같은 부분들이 인터뷰 되었다면 내용이 한층 더 풍성해졌을 것 같음.	작년에 많은 반향을 이끌었고 올해도 의욕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음. 회차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구포 국수 편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지적한 것 같음. 50부작으로 구성되어 매주 방송되며 지적한 부분, 세세한 재현 장면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음 회차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26.2월
기타	[홈페이지] 단독보도, 기획보도 준비가 잘 되어 좋은 사례로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다만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 보도와 문제 해결에 영향을 끼친 보도를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정 기대 등을 같이 담아낸다면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음. ※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단독 보도와 지역 관련 보도한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보도를 잘 해달라는 당부와 홈페이지 부분도 표시를 해서 게시해달라는 의견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홈페이지 뉴스 홈에 다양한 분야로 기사들을 나누어 게시 완료함.	'26.2월

<p>보도</p>	<p>[만덕~센텀 도심도 개통 보도] 부산 센텀에서 만덕까지 10분 만에 직파가 가능한 도심도 터널이 이번 달에 개통하였음. 서부산권으로 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줄다 보니 출퇴근 길에 이용하는데 만덕 IC 인근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생겨 힘들게 함. 이번 보도는 단순히 교통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도가 막힌다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 초정~화명 광역도로 공사가 지연되며 교통량 분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이것을 CG를 통해 쉽게 설명해줬는데 타사 보도와 차별되는 색다른 시각을 전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음.</p>	<p>센텀 만덕 도심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하였으며, 현재 남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만덕 구간의 정체가 심함. 초정~화명 광역도로 부분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음에도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우회로 역할을 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동 못하고 있음. 이런 종류의 광역 이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p>	<p>'26.2월</p>
<p>교양</p>	<p>[K-수산 블루챌린지] 연구 부분에서 국가 기관의 노력과 함께 부산의 여러 지역 및 전국적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음. 해양 수도 부산과 국가, 지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민간의 노력 즉 개인과 기업이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과 수고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실제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의미 있었을 것 같음.</p>	<p>다큐멘터리 신년 기획 작을 보고 날카로운 평가를 해줬는데, 수산이라는 장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지는 않았던 것 같음. 그것을 하면서 놀라워했던 부분이 많아 이 장르가 좀 더 발전되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음. 특히 수산업이 울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으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음.</p>	<p>'26.2월</p>
<p>총 건수</p>		<p>6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6.2~2026.2)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윤정화	1978.11.13	프리랜서	임기만료	1달
임기식	1950.09.25	프리랜서	임기만료	1달
윤석이	1947.12.16	프리랜서	임기만료	1달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전문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성별/생년 (총선임기간)
위원장	강의구	(현)부산영사단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경제단체	남/1946 (20.03.01.~27.03.26)
부위원장	이준홍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	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단체	남/1965 (22.01.01.~27.03.26)
위원	강문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65 (25.03.26~27.03.26)
위원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학부모단체	남/1967 (23.01.01.~27.03.26)
위원	김덕열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부산방송영상포럼	청소년 단체	남/1980 (25.03.26~27.03.26)
위원	김정환	부산 YWCA 사무총장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64 (25.03.26~27.03.26)
위원	김홍준	(주)무지개약품 대표이사	부산울산경남 의약품유통협회	경제단체	남/1987 (25.03.26~27.03.26)
위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71 (25.03.26~27.03.26)
위원	송수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모단체	여/1990 (25.03.26~27.03.26)
위원	송연익	(주)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남/1969 (23.01.01.~27.03.26)
위원	이덕환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74 (25.03.26~27.03.26)
위원	이철희	단디병원 병원장	양산시의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78 (22.01.01.~27.03.26)
위원	임수정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조직위원	(사)자연의 권리찾기	소비자보호단체	여/1973 (23.01.01.~27.03.26)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공개클리닉 웰-지긋지긋한 비염, 원인에 따라 치료하자]</p> <p>이번 회차의 가장 큰 특징은 '비염이 모두 같은 비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점임.</p> <p>비염을 단순히 알레르기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방송에서 혈관 운동성 비염을 중심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원인에 따른 접근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였음.</p> <p>또한 퀴즈와 콩트를 통해 알레르기 검사 결과에 대한 오해, 약국 코 스프레이의 장기 사용의 위험성, 처방 스프레이의 올바른 사용법, 알레르기 비염의 유전적 요인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구성은 정보 전달과 재미를 잘 결합한 사례라고 생각함.</p>	<p>예능적인 기능뿐 아니라 최신 치료 방법,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소개했는데 좋게 봐줘 감사함.</p> <p>앞으로도 의료 프로그램이 단순한 의료 정보만 전달하거나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관심 있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음.</p>	○		
기타	<p>부산의 외국인 학생들 관련하여 학생들의 끼나 그 나라의 문화와 연관된 학교만의 장점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학교별 릴레이식으로 진행해서 약간의 선의의 경쟁도 일으키면 좋겠음.</p> <p>또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 홍보성 기획을 좀 해서 대학교별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 외국인 유학생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대학들과 접촉을 시작함.</p> <p>자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감.</p> <p>제작과 뉴미디어국에서도 아이디어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p>	○		
교양	<p>[지역 유산 아카이브 오래된 미래-구포 국수]</p> <p>과거 영상이 없어 현재 국수 공장 모습과 시를 활용해 CG로 처리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밀가루를 빚어 반죽하는 모습, 수동으로 밀반죽이 면이 되어 나오는 모습 등 옛날 구포 국수 제조 방법이 재현을 통해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음.</p> <p>구포 국수를 만든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포 국수를 먹었던 사람들의 맛에 대한 기억과 그 국수에 얽힌 추억 같은 부분들이 인터뷰 되었다면 내용이 한층 더 풍성해졌을 것 같음.</p>	<p>작년에 많은 반향을 이끌었고 올해도 의욕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음.</p> <p>회차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구포 국수 편에서 조금 아쉬운 정도 지적한 것 같음.</p> <p>50부작으로 구성되어 매주 방송되며 지적한 부분, 세세한 재현 장면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음 회차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p>	○		
기타	<p>[홈페이지]</p> <p>단독보도, 기획보도 준비가 잘 되어 좋은 사례로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p> <p>다만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 보도와 문제 해결에 영향을 끼친 보도를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정 기대 등을 같이 담아낸다면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단독 보도와 지역 관련 보도한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보도를 잘 해달라는 당부와 홈페이지 부분도 표시를 해서 게시해달라는 의견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 홈페이지 뉴스 홈에 다양한 분야로 기사들을 나누어 게시 완료함.</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고</p>	<p>[만덕~센텀 도심도 개통 보도] 부산 센텀에서 만덕까지 10분 만에 직파가 가능한 도심도 터널이 이번 달에 개통하였음. 서부산권으로 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줄다 보니 출퇴근 길에 이용하는데 만덕 IC 인근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생겨 힘들게 함. 이번 보도는 단순히 교통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도가 막힌다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 초정~화명 광역도로 공사가 지연되며 교통량 분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이것을 CG를 통해 쉽게 설명해줬는데 타사 보도와 차별되는 색다른 시각을 전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음.</p>	<p>센텀 만덕 도심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 하였으며, 현재 남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만덕 구간의 정체가 심함. 초정~ 화명 광역도로 부문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음에도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우회로 역할을 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동 못하고 있음. 이런 종류의 광역 이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p>	○		
<p>교양</p>	<p>[K-수산 블루챌린지] 연구 부문에서 국가 기관의 노력과 함께 부산의 여러 지역 및 전국적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음. 해양 수도 부산과 국가, 지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민간의 노력 즉 개인과 기업이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과 수고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실제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의미 있었을 것 같음.</p>	<p>다큐멘터리 신년 기획 작을 보고 날카로운 평가를 해줬는데, 수산이라는 장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지는 않았던 것 같음. 그것을 하면서 놀라워했던 부분이 많아 이 장르가 좀 더 발전되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음. 특히 수산업이 울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으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음.</p>	○		